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호소문

마사이 부족 아이들



먹을것을 기다리는 아이들



식량을 구하기 위한 도강



코로나와 홍수, 산사태로 인해 음식 조달이 어려워져 굶주리고 있는 마을.



한끼의 식사를 위하여

‘목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며칠 전 새벽, 몇장의 사진과 영상이 전경수 목사의 카톡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케냐 B.M.W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솔로몬 목사님에게 온 연락이었습니다.

‘며칠전 엄청난 폭우로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일어나 마을이 초토화 되고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흙과 돌들로 뒤덮인 저 사진 아래에서 많은 이들을 건졌으나 구조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식량을 구하려 나가지 못해 마을 전체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한끼의 식사를 하는것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오토바이로 건너려 시도하였지만, 물살을 이기지 못해 오토바이와 사람이 모두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위험한걸 알면서도, 눈 앞에 다른 사람이 떠내려가는걸 보면서도 굶주리고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시도하는 겁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재림교인입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케냐 돈 120 실링(\$1.2)이면 1kg의 옥수수 가루를 구입할 수 있고 한 가정의 생존을 위해 한달에 30kg의 옥수수 가루가 필요합니다. 한 가족이 한달간 생존하는데 약 32달러입니다. 이 금액은 어쩌면 우리를 ‘어렵게’할 금액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가족의 ‘생존’을 좌우할 금액입니다. 수백명의 생명을 구하는 이 일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집으로 보내지는 선교사들

지난 4월초, East Ethiopia Union Field에서 B.M.W 사무실로 메일이 한통 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정부 정책으로 인해 연합회내 모든 학교 및 교회가 문을 닫게 되어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B.M.W가 운영하는 기드온 300명 선교사 프로젝트를 통해 배출된 평신도 목회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회가 \$10,000의 빚까지 지며 노력하였지만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이제 이들을 집으로 돌려 보낼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이어지는 소식은, 평신도 목회자들이 집으로 돌려보내진 이후 그들이 섬기던 교회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교인들이 떠나가는 등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고 이들을 지원할 금액 일부를 연합회에 보내게 되었으며 현재 이들은 다시 각 교회로 파송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B.M.W는 기존 56명의 평신도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최근 연합회와의 협의를 거쳐 16명을 줄인 40명의 평신도 목회자를 파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명의 목회자를 지원하는데 월 \$80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선교의 최일선에 위치한 교회로 파송됩니다. 이들의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이 없습니다.

에디오피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빈곤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일용직의 일당이 약 \$4이고 이것조차 벌지 못해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일용직조차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Degaga 지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극에 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만 약 1,500여명의 재림교인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수입니다.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수의 가격은 현재 5갤런에 미화 약 25센트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우 적은 금액이지만,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았던 이들이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자 25센트는 매우 큰 금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이들은 돈이 없어 물을 사지 못하고 웅덩이에서, 흐르는 흙탕물에서 물을 떠서 마시고 있습니다.

최근 Degaga Lenda 재림교회는 무너져가는 한 과부의 집을 보수해 주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굶주림과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행해진 이 도움의 손길은 지역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굶주림과 식수난을 해결하도록 도움의 손길을 펼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에 드러나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B.M.W 회장 전경수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 마를 때에 너희는 마실것을 주었다.” (마 25:35)

코로나 19로 인해 지금 온 지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재림 신자들이 먹을 식량과 마실물이 없어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을 코로나 19에 더하여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6.25 전쟁이 마치고 굶주림을 경험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현재 수 많은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몽고,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 에디오피아 여러 나라에서 도와 달라는 부르짖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도와줄때가 아닐까요?



특히 에디오피아는 우리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6,25 당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는 공산당과 싸우기위해 6천여명의 군인들을 보내 우리의 조국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때 그들은 우리의 고아들을 돌봐주었고, 아픈자들을 도와주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배고픔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들이 도와주어야할 때가 아닐지요.

저는 기도 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B.M.W. 선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때 일어나 그들을 도와야 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 부터 어려운 자들을 돕자.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내와 의논하며 아프리카와 방글라데시의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3년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 제 2의 십일조를 구별하여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년째 해에 거둔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가져오라. 그것을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마을에서 마음껏 먹게하라.” (신26:12)

“제 2의 십일조는 (빈민구제), 자선사업과 접대하는 용도로 자금을 지출하였다. 가난한 자와 고통 당하는 자들은 도움을 받아야한다. 특별히 이 사역은 진리의 깃발이 한번도 들려진 적이 없는 지역에서 행해져야한다.” (구호봉사, 274)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때 가진자들이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드렸을때에 그것으로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나눔으로 유무상통의 경험을 한 것처럼 이 시대의 마지막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나눔시다.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의 것을 아껴 나의 이웃들을 도와 주시지 않겠습니까? 각 교회의 도루가 임원들이 모아 두었던 자금과 각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아 그들을 도와 줍시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들이 사는 지역인 카자도에 4,000여 가정이 물과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포콧족과 두루가나족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곡식들을 빼앗겼습니다. 에디오피아도 무려 2,000만 명이 기아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돕고 싶어도 할수가 없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게 될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시게 될것입니다.

“내 아버지로 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창조때부터 예비된 나라를 물려 받으라고 선언하십니다.” (마 25:35,36)

만약 주님께서 배가 고프시다면 달려가서 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 마르시다면 물을 갖다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B.M.W. (세계 자전거 지원 선교회)

회장 : 전경수 선교사

한국 지부 회장: 손태순 장로

후원안내

1. 미국 본부로 체크로 보내실분: Pay to B.M.W. inc
주소 : 9067 US Highway 31. Suite 200 Berrien Springs .MI 49103 (USA)
2. 한국으로 보내실경우(후원계좌) / 예금주 (사) 세계 자전거 선교회
우리은행: 1005-702- 653637 / 농협: 301-0161-9202-91



B.M.W.는 IRS 정식으로 등록된 비영리단체 (501)(C)(3)입니다. 자금을 보내 주시는 분들에게는 연방정부 세금공제 영수증을 각 가정으로 발송해 드립니다.